

##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열왕기상 19:9-18

### 1. 시작하며

- A. 엘리야: 구약 시대 북 이스라엘에서 활약한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율법 시대를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 B.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노래
- i. 도니 맥컬킨이라는 흑인 가수가 부른 노래가 국내에 소개됨.
  - ii.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 날이 다가와도 / 우리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 iii. 원래 가사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의가 회복되네. 비록 지금은 큰 환난의 때지만, 기근과 어둠과 칼의 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 (후렴)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해와 같이 빛나며 오신다. 트럼펫 소리가 날 때 목소리를 높여라. 그때는 희년이니 시온의 언덕에서 구원이 온다.
- C.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의 확산
- i. 엘리야, 모세, 에스겔, 다윗, 희년, 시온 → 모두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
  - ii. 큰 환난, 기근, 어둠, 칼 → 지금이 환난기인가?
  - iii. 말세에 이스라엘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바로 지상낙원이 세워진다는 입장. 7년 환난과, 환난 전 교회의 휴거는 없음 → 시온주의,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연계된 사상
- D. 엘리야 때의 상황은?
- i. 왕상19:9-18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말함
  - ii.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노래는 잘못되었으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 2. 엘리야의 때란?

- A.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 i. 왕상16:34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함.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 스굽을 잃음  
수6:26 누구든지 여리고를 건축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대언
  - ii.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축함. 아들이 죽어도 돌이키지 않고 공사 강행.

- iii. 엘리야의 때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이스라엘에 말세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 B.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시대
- i. 왕상17:1, 약5:17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 기근으로 시달림
  - ii. 2013년 브라질 북동부 30년만의 최악의 가뭄, 시베리아 영하 60도의 한파에 170명이 죽고, 호주는 120년만의 폭염으로 47도까지 기온이 올라감.
  - iii. 한국에서는 벚꽃 개화시기를 종잡을 수가 없고, 봄은 잠깐이고 바로 여름. 남해안에 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하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아열대 어종들이 번식
  - iv. 금년에도 전문가들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흉작,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C.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
- i. 왕상18:4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임
  - ii. 종교 연합, 은사주의, 기복신앙, 사회봉사, 축복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함
  - iii.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을 선포하면 거부함  
믿는 자들에게 보존된 진리의 말씀과 성경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면 싫어함
- D. 우상의 종교가 변영하는 시대
- i. 바알 종교가 변영한 이유: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이 비를 주는데,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해야 신들이 흥분해서 비를 준다는 믿음.  
→ 쾌락과 물질의 복을 준다고 선포하는 종교가 잘 됨.
  - ii. 왕상18:19 하나님의 대언자는 한 명, 우상 종교의 대언자는 850명
  - iii. 왕상18:21 백성들은 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두 의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거림
  - iv. 26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만 반복. 만트라 제단 위에서 경충경충 뛰고, 28절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함
  - v.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고, 쓰러지고 뒹구는 은사주의 집회와 같음
- E.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 - 인본주의, 페미니즘 사상의 보급
- i. 왕상19:1-2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함
  - ii. 왕상21장 아합을 위해 이세벨이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함
  - iii.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 1. 성경에 없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제도를 수용한 교회가 많음
    - 2. “남편이 대대장이면, 대대장 부인은 연대장” → 사모님의 입김과 권세
    - 3. 창2:18 아내는 남편의 합당한 조력자이지, 지도자가 아님  
창3:16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지,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됨  
고전14:35 교회 내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됨
    - 4. 아내는 남편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됨  
왕상21:25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 F. 잘못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시대

- i. 왕상22:4 시리아와 전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사이의 연합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주를 믿는 유다와 같은가?  
대하20:35 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여호사밧이 공동으로 해상무역단 준비
- ii.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아합의 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보내어 결혼 동맹을 맺음
- iii. 종교간 대화 → 종교간 화해 → 종교 통합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 서로 전도하지 말자고 주장. 종교 통합운동은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음녀 종교 시스템을 위한 것

## G. 거짓 대언자들이 성행하는 시대

- i. 왕상22:12 대언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되어 엉터리 대언을 함
- ii. 오늘날도 거짓 대언자들은 죄인들에게 심판과 지옥을 경고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렘6:14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 iii. 거짓 대언자들은 재물을 많이 내는 자에게는 축복기도를 해주고, 안 주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함. 무당에게 복채 내는 것과 비슷함.  
미3:5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 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 H.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되 믿지 않는 시대

- i. 왕하2:3,5 벤엘과 여리고의 대언자들은 엘리야가 채여 올라갈 것을 알고 있음.  
왕하2:16 그들은 엘리야가 올리위 가는 것을 보러가지도 않았고, 주의 영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지 못하고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라고 믿음.  
엘리야 수색 구조대를 보내는 헛수고를 함.
- ii. 마2:4-6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동방의 지혜자들은 몰랐지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5:2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음
- iii.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알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
  1. 주께서 성경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시12:6-7), 이를 믿지 않고 학자들의 노력으로 성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
  2.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 믿음을 통해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이를 믿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 봉사, 청교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
  3.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 → 말씀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음

I. 종합 정리: 엘리야의 때는 어떤 시대인가?

- i. 엘리야의 때는, 이스라엘에 말세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가 아님.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거부하고 눈이 먼 상태(롬11:25)
- ii. 엘리야의 때는 세상에 죄와 불법이 창궐하게 되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때
- iii. 엘리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핍박받는 때
- iv. 엘리야의 때가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엘리야가 하늘로 채여 올라간 것처럼, 신약 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일어남

3. 결론

- A. 지금 국제 정세, 종교적 상황, 자연 환경, 문화 등을 보면, 엘리야의 때와 같다.
- B.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 C. 이런 엘리야의 때에, 휴거를 바라보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i.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늦출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들을 바꾸어 놓을 수도 없다.
  - ii. 이런 마지막 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가정과 학교,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iii. 아직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 iv.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 v.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3:2-3).